

비즈니스엿보기

울텍바이오���리아(주)



▲ 이상훈 대표이사

PIG PRODUCTION

울텍의 상호교류
양돈 프로그램

“미래 기술로
축산업의 미래를
밝히다”
즐겁게 일하고,
성공을 즐기는’ 기업

Premier International Program

>>> [취재_ 오세진]

"미래 기술로 축산업의 미래를 밝히다"

'즐겁게 일하고, 성공을 즐기는' 기업 올텍바이오코리아(주)



▲ 이상훈 대표이사는 "일은 Hard(힘들게)가 아니라 Smart(현명하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 사료 생산량은 곧 중국 수요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미리 파악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앞날은 어두울 것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글로벌 기업 올텍(Alltech)의 제20회 아시아-태평양 순회강연에서 올텍 사장인 Pearse Lyons 박사는 안타까운 마음에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는 "우리는 섬유소를 연료로 바꾸고, 단백질로 바꾸는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연구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수에 맞춰 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강연에서 드러나듯 올텍은 1980년 설립 당시부터 '천연의 해결방법(Naturally)'을 이용해 사료첨가제를 개발, 연구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을 표방해왔다.

올텍의 '자연주의'는 참살이(Wellbeing) 트렌드와 함께 항생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한

발 앞선 행보였다고 할 수 있다.

올텍의 한국 지사인 올텍바이오코리아(주)는 지난 2001년 창립, 전 세계에서 창출되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다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의 장점을 살려 한국 사료 산업에 적합한 제품과 방법을 선보이고 있다.

효율성과 마케팅 다변화로 경쟁력 높여

올텍바이오코리아(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0-13) 사무실에 들어서니 경쾌한 음악소리와 함께 한 쪽에서 업무를 보던 이상훈 대표이사가 반긴다.

"대표실에서 말씀 나눌까요?"

"우린 대표실 따로 없어요. 여기서 같이 일하고 호흡하죠. 저도 크게 보면 영업직원인걸요. 직원들이 불편하려나?"

일부러 말꼬리를 살짝 올리며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는 이 대표.

서로 주고받는 눈길에 웃음이 배어 있다.

"우리 사장님의 이러세요. 늘 좋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일하자고 강조하죠. 그러다보니 서로 대화가 많아지고 토론문화가 형성돼 일의 효율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올텍코리아의 직원들은 회사의 성장 동력이 '효율성'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은 Hard(힘들게)가 아니라 Smart(현명하게)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평소 지론은 '즐겁게 일하고, 성공을 즐기자'는 사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와 함께 올텍은 교육을 통한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으로도 유명하다.

전 세계 순회강연, 국제 사료산업 심포지엄, 세미



▲ 글로벌 기업 올텍 본사

나 등을 정기, 혹은 수시로 개최하고 뉴스레터, 논문 및 전문 기술 간행물 등을 제작·보급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국제 사료산업 심포지엄은 전 세계의 저명한 교수, 연구원, 축산 관계자 등 2,000명 가량의 축산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중요한 이슈 등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기술을 전달한다. 올해는 5월 20일~23일에 미국 켄터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일부에서는 너무 마케팅에만 치중한다고 우려하는데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서 연구 성과와 정보 공유라는 측면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결국 파트너로서 원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올텍코리아도 제품 판매에 앞서 정보 제공과 신뢰구축에 힘쓰다보니 Potential customer(잠재 고객)들이 어느덧 단골고객이 돼있더라고요”라고 말한다.

특히 이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서비스 정신’.

대학 졸업 후 지속적으로 몸담아왔던 사료업체에서의 연구 경험과 이스라엘 낙농분야의 필드 경험 등을 살려 고객별로 1:1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제 고객은 제품 외에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죠. 고객의 필요에 맞게 국내외 유명 인사를 초청해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현재 국내 대부분의 사료회사와 거래하고 있으며, 적은 양이라도 수요를 맞춰주고 서비스에 신경 쓴 결과 매년 25% 가량의 가파른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 기술과 연구로 더 높게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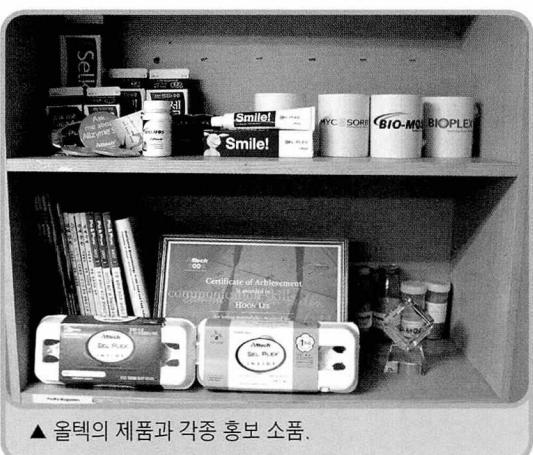
올텍은 55개의 올텍 지사를 포함, 85개국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1,7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

핵심 연구 분야는 ‘효모, 발효, 고상발효 효소제, 펩타이드 기술’로, 창립시부터 ACE(Animal Consumer Environment: 가축 생산성 증대, 고객 이익, 환경 보호)를 모토로 삼고 있다.

올텍코리아는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그룹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태평양 그룹에서 현재 3~4위를 차지하며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올해는 한국시장에 두 가지 제품을 더 런칭, ‘Big6 +2캠페인’을 펼치며 추가 매출을 노리고 있다.

‘Big6’는 올텍의 대표제품으로, 유기태 미량 광



▲ 올텍의 제품과 각종 흥보 소품.

"미래 기술로 축산업의 미래를 밝히다"

'즐겁게 일하고, 성공을 즐기는' 기업 올텍바이오코리아(주)

물질인 바이오플렉스(Bioplex), 특히 받은 마이코 톡신 흡착제 마이코솔브(Mycosorb), 반추위 조절제 이썩(Yea-Sacc), FDA와 EU 승인을 받은 유기태 셀레늄 셀플렉스(Sel-Plex), 천연의 성장 촉진제 바이오모스(Bio-Mos), 천연의 복합 효소제 올자임 SSF(Allzyme SSF)를 말한다. 여기에 천연의 사일리지 처리제 사일-올^{4×4}(Sil-All^{4×4})과 어린가축을 위한 기능성 영양소 뉴프로(NuPro) 두 제품을 합세해 더 높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은 큰 시장이에요. 올텍코리아가 크게 성장해 아·태 그룹에서 1인자가 되는 것이 1차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대부분의 한국 첨가제 업체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물론 올텍에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 매년 말 한 해 분량의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을 설정, 몇 차례 Level up 되면 MBA 과정을 수료케 하는 등 각자가 필드에 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돋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런 과정이 대학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료와 관련한 대학 및 학과가 줄어들고 점점 넓은 범위로 포괄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에 학생 지원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것이 2차 목표예요. 결국에는 인재육성이 올텍 뿐 아니라 축산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자, 여기 좀 보세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기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이 대표가 가리킨 것은 스마일 뱃지.

"이 뱃지는 SEL-PLEX 제품 홍보를 위해 제작된

거예요. 지금 캠페인 기간이거든요. 셀플렉스를 섭취하면 가축도, 사람도 웃게 된다고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들 웃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 달고 다니죠."

올텍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 2010년 미국 켄터키에서 국제승마연맹(FEI) 경마시합을 개최하게 된 것. '세계 말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있는 행사이기에 한국지사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아직 한국 사료시장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또한 틈새시장을 노리는 등 특정한 마케팅 전략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인터뷰 중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나 계획 등에 관한 질문에는 동석한 직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까" 등을 연거푸 확인한 이 대표.

"사람은 외고집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 변화할 줄 알아야 한다"며 수차례 '변화'를 강조하는 그와 직원들의 모습에서 올텍코리아의 매서운 힘이 느껴졌다. ⑤



▲ 올텍이 제작한 각종 세미나 자료와 전문기술 간행물, 리플렛 등.